

HLB, 전략형 리더십으로 전환… 신약개발·글로벌 사업 속도

진양곤 회장,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
신임 CEO에 김홍철 대표 내정

전략기획부문 확대·미래전략팀 신설
리보세라닙 병용요법 허가 재추진
담관암·선낭암 등 파이프라인 확대

HLB그룹이 대대적인 리더십 재편에 나서며 '미래 성장 중심 CEO'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진양곤 HLB그룹 회장은 HLB 대표직을 내려놓고 그룹 이사회 의장으로 이동한다. 그룹 전체 지배구조 상단에서 전략 수립 및 신규 성장동력 발굴을 총괄할 계획이다. 그룹 내 계열사 운영은 단독대표를 주축으로 의사결정과 책임을 일원화해 사업 단계별로 필요한 '신약개발'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구조 개편이다.

2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HLB그룹은 2026년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향후 주총과 이사회를 거쳐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우선 진양곤 HLB그룹 회장은 HLB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그룹 이사회 의장 역할에 집중한다. 중장기 성장 로드맵 설계와 글로벌 전략 실행을 직접 견인하기 위한 결정이다.

진양곤 의장 직속 기구 '현장지원본부'도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기획인사부문을 '전략기획부문'으로 확대하고



진양곤 HLB그룹 이사회 의장.

/HLB그룹

산하에 '미래전략팀'을 신설한다. 특히 간암 신약, 담관암 신약 등에 대한 품목 허가 신청, 상업화 등을 속도감 있게 실행한다는 의지를 적극 반영했다.

HLB그룹은 이번 인사를 통해 '신약개발'을 다각화하기 위한 경영 전략에 속도를 낸다.

새로운 HLB 대표에는 김홍철 HLB 이노베이션 대표가 내정됐다. 김홍철 대표는 지난 2023년부터 HLB이노베이션을 이끌었고 미국에서 CAR-T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텍 '베리스모'를 자회사로 인수해 지원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연구개발(R&D) 기반을 다졌다.

김 신임 HLB 대표는 HLB이노베이

션과 베리스모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HLB 핵심 과제인 '리보세라닙과 캄펠리주맙 병용요법' 품목허가를 지속 추진한다.

HLB는 간암 1차 치료제로 '리보세라닙'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부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리보세라닙과 캄펠리주맙 병용요법'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등 글로벌 의약품 시장 진출을 도전해 왔다.

다만, 올해 3월 미국 FDA로부터 2차 서류보완요구서한(CRL)을 수령하면서 해당 병용요법의 재도전은 불발됐다. 미국 FDA는 HLB의 리보세라닙과 병용으로 쓰이는 중국 항서제약의 캄펠리주맙에 대한 의약품 화학합성·공장생산·

품질관리(CMC) 사항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캄펠리주맙이 승인 요건을 갖출 때까지 리보세라닙 승인도 자동적으로 보류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HLB는 후속 파이프라인도 담관암, 선낭암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 담관암 신약 후보물질인 '리라푸그라티닙', 선낭암 치료제로 '리보세라닙 단독요법' 등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오는 2030년 다양한 항암제를 보유한 빅파마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에는 HLB와 HLB사이언스의 합병안도 통과됐다. 항암제 임상개발 역량과 펩타이드 기반 초기 후보물질 발굴 능력을 결합해 탐색에서 상업화까지 이어지는 신약개발 전 과정의 경쟁력을 높인다.

HLB이노베이션의 대표에는 윤종선 HLB사이언스 대표가 내정됐다. 또 김도연 HLB제넥스 대표는 자회사 HLB 뉴로토브의 대표로, 장인근 HLB파나진 대표는 자회사 바이오스퀘어 대표로 내정되면서 모회사와 자회사 간 사업연계 및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HLB그룹 측은 "진양곤 의장의 미래 전략 리더십 아래 그룹의 방향성이 더욱 선명해지면서 계열사 간 협력은 물론 해외 사업 확장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아모레퍼시픽

‘오딧세이’ 신년 한정판

붉은 말의 해 담은 리미티드 디자인

아모레퍼시픽은 2026년 병연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하며 남성 스킨케어 브랜드 '오딧세이'에서 신년 한정판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한정판은 '로맨틱'과 '블랙' 두 종류로 구성됐다. 오딧세이 로맨틱은 상쾌한 시트러스와 은은한 플로럴 향이 특징이다. 그린티와 캐모마일 성분은 거친 남성 피부를 진정시키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오딧세이 블랙은 묵직한 스파이시 우디향이 매력적인 제품이다. 아데노신, 나이아신아마이드 등의 유효성분이 주름과 피부 톤 개선에 효과적이다.

아울러 말(馬)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움을 강화하면서도 붉은 말이 지닌 열정, 도전,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오딧세이만의 감각으로 담았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2026년 새 출발을 준비하는 남성들에게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며 "또 1996년 출시부터 지금까지 30년간 꾸준히 사랑받은 오딧세이의 30년 헤리티지를 기념하는 동시에 앞으로 이어갈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 '골질환 치료제 2종' 유럽서 출시

바이오시밀러 오보덴스·엑스브릭
유럽 직접 전략으로 커머셜 역량 강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유럽에서 골질환 치료제 2종 '오보덴스'와 '엑스브릭'을 12월과 2026년 1월에 순차적으로 직접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오보덴스와 엑스브릭은 각각 글로벌 제약사 암젠이 개발한 프롤리아와 엑스지바 바이오시밀러다. 데노수맙 성분의 용량과 투약 주기에 따라 골다



오보덴스(왼쪽), 엑스브릭(오른쪽)

/삼성바이오에피스

공증 치료제(오보덴스)와 골거대세포종 등의 치료제(엑스브릭)로 구분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016년 유

럽에서 10년만에 총 10종의 제품을 상용화하게 됐다.

엔브렐 바이오시밀러인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베네팔리'를 출시한 이후 면역학, 종양학, 안과학, 혈액학 등 다양한 질환 영역에서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왔다.

아울러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유럽법인을 중심으로 맞춤형 판매 전략을 펼친다. 그동안 유럽 시장에서 쌓은 커머셜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판매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다양한 치료 분야의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판매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보덴스와 엑스브릭을 출시하게 됐으며, 바이오시밀러를 통해 환자들에게 더 많은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JW중외제약

‘리바로하이 정’ 선보여

고혈압·이상지질혈증 동시 관리

JW중외제약은 이상지질혈증과 고혈압을 동시에 관리하는 3제 복합제 '리바로하이 정'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리바로하이 정은 국내 최초 피타바스타틴 3제 복합제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인 피타바스타틴, 고혈압 치료제 암로디핀, 발사르탄을 하나의 제형으로 처방했다.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한 환자의 혈압과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LDL-C)을 동시에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리바로하이 정 임상에서 리바로하이 정 투여군은 대조군(피타바스타틴+발사르탄, 발사르탄+암로디핀) 대비 LDL-C와 수축기 혈압이 완기 혈압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리바로하이 정 투여 8주차에 LDL-C는 대조군 대비 38.3% 감소했다. 수축기 혈압은 22.1mmHg, 이완기 혈압은 9.8mmHg 낮아졌다.

지난달 29일 워싱턴 DC 워싱턴호텔에서 열린 리바로하이 정 출시 기념 심포지엄에서도 약효와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공유됐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순환기, 내분비대사 등 내과 전문의를 비롯한 의료진이 참석한 가운데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심혈관센터 나진오 교수는 '리바로하이 정'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발표했다.

나 교수는 "리바로하이의 임상 결과는 다양한 환자군 대상 심부전, 심근경색 관련 예후 개선을 보여 폭넓은 치료 적용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셀트리온, 중남미 공립시장 공략 본격화

‘램시마SC’ 공식 판매 시작

셀트리온은 최근 칠레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SC' 판매를 정식으로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발매로 셀트리온은 중남미 공립시장에 처음 진출했다. 중남미 지역의 경우 의약품 공급 채널이 공립시장과 사립시장이 8:2 비율로 형성돼 사실상 공립시장이 제품 판매의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 2023년 4월 칠레 공보보건청(ISP)에서 '램시마SC' 품목허가를 획득하고 공보보험 등재를 목표로 칠레 정부와 지속 소통해 왔다. 램시마SC 임상 자료, 발표 논문 등 다수의 자료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등 우수한 제품력을 알렸고 그 결과 올해 4월 칠레 공보보험에 공식 등재됐다. 이후 약 7개월여 만에 칠레 공립시장에서 램시마SC가 선보여지게 됐다.

회사측에 따르면 출시에 속도를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현지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이 램시마SC 출시를 적극적으로 요청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칠레 염증성장질환(IBD) 학회에서는 램시마SC 공보보험 등재를 요구하는 학회장 명의의 등재 요청서한을 심의기관에 공식 제출했다. 또 현지 환우회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램시마SC 등재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청하 기자

대웅제약, ‘씨콜드프리미엄정’ 리뉴얼

종합 감기약, 낮·밤 다른 성분 처방

대웅제약은 하루 생활 밀착형 종합감기약 '씨콜드프리미엄정'을 재단장했다고 2일 밝혔다.

씨콜드프리미엄정은 일반의약품으로 콧물, 코막힘, 기침, 인후통 등에 효능효과를 갖췄고, '활동, 수면, 회복' 주기에 따라 감기 증상을 완화해 준다. 낮과 밤에 맞춘 성분 배합으로 낮에는 졸리지 않고 밤에는 숙면을 돕는다.

주간용은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히스타민 성분을 제외하고 카페인 함유하지 않아 집중 유지와 안정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야간용에는 디펜히

드라민을 포함해 밤새 기침을 가라앉혀주고, 콧물·재채기 증상을 줄여 편안한 숙면을 고려한다. 주간용은 주황색 알약에 CCD(씨콜드데이), 야간용은 파란색 알약에 CCN(씨콜드나이트)를 표기했다.

1회 1정 복용으로 복약 편의성도 높였다. 또 한 박스로 3일 이상 복용할 수 있어 기존 제품 대비 약 2배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최근 생활 패턴에 맞춘 감기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씨콜드프리미엄정은 주·야간 성분 설계, 비타민 함유, 복약 편의성 개선을 통해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